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

조효임(서울교육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민요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를 학습제재로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르프 음악놀이 지도방안을 구안하여 유치원 수업이나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개발에 있다. 연구 방법과 내용은 먼저 학습 제재인 제주도 해녀 소리 「이어도 사나」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즉흥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말리듬, 장단을 활용한 리듬 오스티나토(rhythm ostinato)와 가락 오스티나토(melody ostinato) 반주 붙이기로 다성 노래 부르기, 전통악기 소고로 합주하기, 즉흥 신체표현으로서 한삼춤사위를 활용한 춤놀이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활동으로서 ‘오르프 음악놀이’ 만들기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전통교육을 위하여 우리의 언어와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토착민요와 전통춤 및 전통악기를 학습 제재로 하였으며, 즉흥표현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창의성과 음악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집단학습 지도방안의 모색이라는 데에 있다***.

주요어 : 오르프 음악놀이, 민요 음악놀이 지도방안,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 각 지방에 따라 뱃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남단 섬인 제주도는 생활상이나 언어 및 문화가 육지와는 구별되며, 제주민요 중에는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물질하며 노를 젓거나 쉴 때에 부르는 노래 ‘해녀소리’(또는 ‘해녀 노젓는 소리’)가 특징이 있다. 제주도 뱃노래 중에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는 전 지역에 걸쳐서 알려진 민요이다.

오르프(C. Orff, 1985-1982)는 오르프-슐베르크(Orff- Schulwerk)에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음악교육의 토대로 하여 즉흥표현 활동의 체험을 통하여 창의성과 음악성을 신장 시키는 음악교육을 발전시켰다. 특히 그는 기초 음악교육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비롯하여 전통악기와 토착민요 및 전통춤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과교육 공동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cholee@snu.ac.kr

*** 본 논문은 2008년 6월 남양주시 부영예술유치원 학부모참여수업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지도교사 고은실 박사의 도움이 컸음을 밝힌다.

등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르프-술베르크의 즉흥표현의 원리를 토대로 제주도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를 학습제재로 오르프 음악놀이 지도방안을 구안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재량학습 및 특별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내용은 먼저 학습 제재인 제주도 해녀 소리 「이어도 사나」의 의의를 살펴본 다음, 즉흥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말리듬, 장단을 활용한 리듬오스티나토(rhythm ostinato), 가락 오스티나토(melody ostinato) 반주 붙이기로 다성 노래 부르기, 전통악기 소고로 합주하기, 즉흥 신체표현으로서 한삼춤사위를 활용한 춤놀이 등의 통합적 활동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르프 음악놀이’로 발전시켜 우리 민요에 대한 이해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제주도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의의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부르던 뱃노래로서 바다로 물질 작업을 나갈 때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제주도의 어업과 관련하여 불려지는 민요는 「해녀소리」, 「멀치 후리는 소리」, 「떼배 젓는 소리」, 「자리 잡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 「선유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알려진 민요가 해녀소리이다. 이 노래는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르던 민요이나, 남자 어부들도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어떤 경우에는 어부가 선소리를 하고 해녀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부르기도 한다.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가사는 ‘이어도’(제주도 남단인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닷물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 4.6m에 잠겨있는 섬)라는 이상향인 ‘환상의 섬’을 노래하며 자신들의 힘든 노동과 작업의 고됨을 잠시라도 잊거나 달래기 위해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사람들은 예로부터 실제로 살 수 없는 이어도를 ‘돌아오지 않는 어부들은 이어도에 갔다’고 막연한 공상을 할 정도로 신비한 전설의 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채보된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곡들을 살펴보면 해녀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 해내는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민요의 감정적 폭이 크며 또한 음역도 비교적 넓다.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하게 부르다가 후반부에서는 차분하게 낮은 소리로 답창을 하기도 한다. 도약진행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며 바다의 험한 풍랑을 이겨내려는 감정적 흥취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민요의 형식은 한 사람이 메기는 소리로 선소리를 하면 후창인 받는 소리로 여러 사람이 선소리를 모방을 하며 엮어 나가는 교창이다. 리듬 꼴은 단순하며 차분하게 노를 젓다가 흥이 나면 빨라지기도 한다. 혼자 노를 젓기 보다는 두 사람이 마주 보며 노를 젓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해녀들은 배위에서 빗창(소라나 전복을 켈 때 쓰는 가는 쇠막대)으로 태악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며 후창을 부르기도 한다. 이 노래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각박한 노동에서 벗어나 이어도라는 이상향일 것 같은 섬에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삶의 꿈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도 사나’라는 말은 멀리 배를 타고 나가거나 노를 젓는데 힘을 내기 위하여 내지

르는 어휘이기도 하며 별 뜻 없이 후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는 채보자에 따라 악곡이 조금씩 다르고, 가사도 약간씩 다른 몇 가지가 전해지고 있으나(김순제(1990), 250-251) 본 연구에서는 안경수의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제주도 민요곡집』에 수록된 「해녀 노 짓는 소리」와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를 참조하여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개사와 편곡을 하였다.(2005, 49-51) 개사된 가사는 이 노래(2005, 47)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 가사 중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편곡은 자진모리장단과 후렴을 바탕으로 원곡을 활용하여 단순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제주도민요
채보 안경수
조효임 개사·편곡

자진모리 (후렴)



이 어 도사 나 어 허 - 어 이 어 도사 나 어 허 - 어

(메기는 소리)



1. 이 어 도 사 나 잘 - 도 간 다 이 어 도 사 나 잘 도 온 다
2. 이 물 - 에 는 이 사 공 아 저 물 - 에 는 고 사 공 아
3. 물 로 - 뱅 뱅 도 라 진 섬 에 먹 으 나 굶 으 나 물 질 허 영
4. 고 동 - 생 복 하 서 라 마 는 내 숨 - 쫓 랑 못 헐 래 라

(후렴 : 밭는 소리)



이 어 도사 나 어 허 - 어 이 어 도사 나 어 허 - 어

악보 1. 편곡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Ⅲ.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

1.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의 활동 구성

제주도 민요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를 학습재대로 활용한 오르프 음악놀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활동I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탐색은 이어도와 해녀들의 삶 탐색하기와 노랫말 리듬 놀이, 노래부르기 및 자진모리 탐색하기 4가지 활동영역으로 구성된다. 활동II는 다성부 합창으로 오스티나토와 보르돈을 활용하여 2성부 및 3성부합창을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활동III 한삼춤 놀이는 한삼춤 기본춤사위 익히기와 노래를 부르며 한삼춤 밧놀이하는 신체표현 활동이다. 활동IV 풍어 밧놀이는 고기잡이 놀이 음악극으로 <바다탐색>→<밀물놀이>→<썰물투망놀이>→<갯벌탐색>→<고기잡이> 등 5장면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활동V 소고춤 북놀이는 방향 바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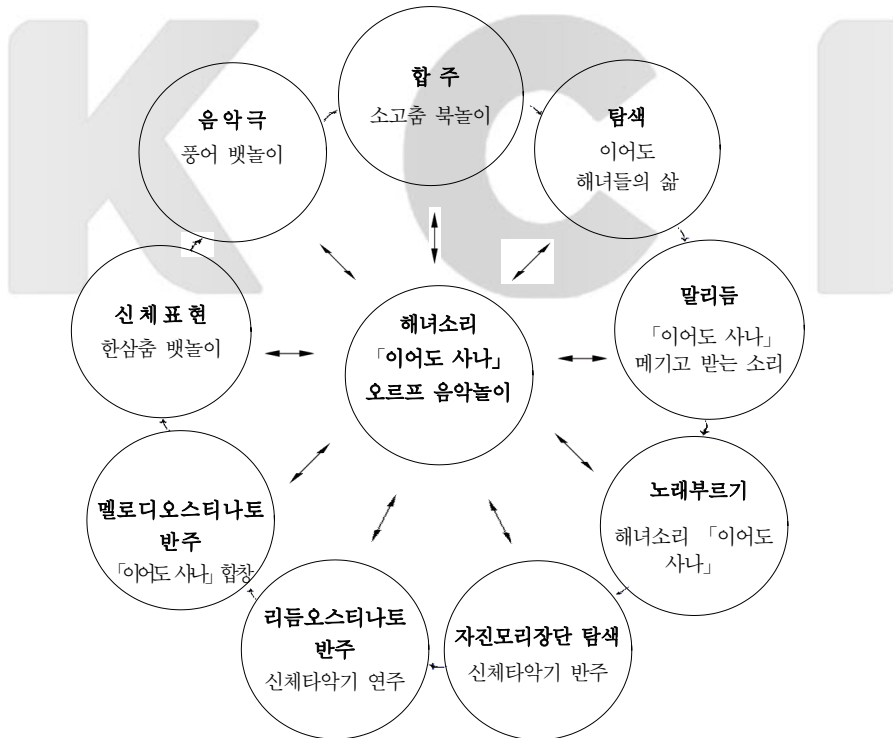
가면서 소고치고 노래부르고 춤추는 통합적인 합주활동이다.

표 1.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 활동

활동 단계	대단원 활동 주제
활동I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탐색
활동II	다성부 합창
활동III	한삼춤 놀이
활동IV	풍어 뱃놀이
활동V	소고춤 북놀이

위의 5단계 활동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활동영역으로 구성 된다. 이들 9개 활동영역은 단계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학습자의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단계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생략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활동영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 활동 영역



2. 형식구성 요소와 학습준비물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는 즉흥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도 민요 해녀소리 「이어

도 사나」를 비롯한 한국 전통소재로 자진모리장단, 전통타악기 및 전통춤사위가 활용되며, 메기고 받는 소리, 오스티나토, 보르둔, 론도 등이 형식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노래부르기 활동에서는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노래를 익히고 오스티나토 반주로 자진모리 구음장단 ‘덩-덩-덩-따쿵따’를 사용하며, 신체표현의 요소로는 한삼춤과 소고춤, 합주활동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사용하였던 물허벅(물이 귀하던 시절 제주도민들이 물을 길어 나르던 옹기)과 태악을 활용한다. 그러나 물허벅과 태악은 현재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물허벅은 옹기 또는 봉고 등의 북종류 악기로, 태악은 바가지나 아고고, 퍽탁블럭, 귀로와 같은 목제악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흥연주 중심의 활동을 위한 학습준비물을 활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활동별 학습준비물

활동	교사용	학생용
활동I	단소(또는 리코더), 물허벅, 태악, 빗창, 나무채(또는 북종류 악기); 소품-두건(또는 해녀복장)*	두건
활동II	1단계와 동일	두건
활동III	한삼 및 1단계와 동일	두건과 한삼
활동IV	1단계와 동일	5명 1조의 그물(또는 보자기)
활동V	소고 및 1단계와 동일	소고

* 교사는 두건 외에 흰 저고리, 까만 고쟁이, 검정 고무신, 수경 등을 추가하여 해녀복장을 갖춘 다음 태악을 들고 해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수경은 종이로 만들어 머리띠가면으로 한다.

3.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 지도안

1) 활동I -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탐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탐색은 이어도와 해녀들의 삶 탐색하기와 노랫말 리듬 놀이, 노래부르기 및 자진모리 탐색하기 4가지 활동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형 ‘이어도’에 관하여 탐색하고 태악과 그물망을 메고 깊은 바다 속에서 소리와 전복을 캐는 제주도 해녀의 삶을 탐색한다. ②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노랫말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이해한다. ③ 노래말 말리듬 활동은 동시모방에서 기억모방으로 진행한 다음 중복모방 단계로 손뼉치기 등의 신체타악기 연주로 전개한다. ④ 노래부르기 활동은 「해녀소리 이어도」 리듬대로 손뼉을 치면서 따라 부르기로 멜로디를 익힌 다음, 멜로디의 특성을 알고 시김새 소리를 내어 본다. ⑤ 자진모리장단 탐색 활동은 구음장단 ‘덩-덩-덩-따쿵따’를 손뼉치기로 따라 한 다음, 익숙해지면 장구처럼 무릎치기로 익힌다. ⑥ 리듬오스티나토 반주는 두 파트로 나뉘어 한 파트는 「해녀소리 이어도」 노래의 리듬을 치고, 다른 한 파트는 자진모리구음장단 리듬오스티나토 치기(A팀-원 노래 리듬치기, B팀-자진모리장단 치기) ⑦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해 보기. ⑧ 메기고 받기: 메기는 팀과 받는 팀으로 나누어 노래 부르기는 교사가 독창으로 메기는 소리를 하며, 제창으로 학생이 받는다. 그럼 다음 A팀과 B팀으로 바꾸어 부르기와 서로 역할 바꿔서 부르기를 한다. 메기는 사람은 독창으로 가사를 자유자재로 바다의 삶을 창작 가사로 개사하

여 부르고 받는 사람은 합창으로 전체 부르기를 한다 ⑨ 합창: 2성부 합창은 멜로디 오스티나토 붙이는 활동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 A팀은 「해녀소리 이어도」 노래를, B팀은 창작 멜로디 오스티나토를 부르며 2성부 합창을 한다. ⑩ 마무리 합창: 두 마디씩 전주와 후주로 자진모리 장단을 활용하여 합창을 한다. 전개과정은 먼저 자진모리 구음장단 '딩-딩-딩-따쿵따-'을 두 번 신체리듬을 치고 합창을 시작 한다. 메기고 받으면서 자진모리 장단을 함께 치면서 역할을 바꿔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후주로 두 번 부르고 1단계 활동을 마무리한다.

2) 활동 II - 다성부 합창

(1) 리듬오스티나토 - 자진모리장단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자진모리장단을 리듬오스티나토로 활용할 수 있다. 장구구음장단이나 무릎장단 또는 소고장단 등으로 여러 가지 신체타악기를 바꾸어가며 자진모리장단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표 4. 자진모리 장구장단 및 구음장단

장단\박	1	2	3	2	2	3	3	2	3	4	2	3
장구부호	①			①			①			○		
구음장단	딩			딩			딩		따	쿵	따	
무릎장단	양			양			양		오	원	오	
소고장단	궁			궁			궁		따	궁	따	

예컨대, 자진모리 장구장단을 무릎치기(신체타악기)로 구음을 바꿔가면서 위의 표와 같은 방법으로 익힐 수 있다. 처음에는 장구구음 장단(딩-딩-딩-따쿵따-)을 손뼉치기로 익힌 다음, 무릎장단 구음(양-양-양-오원오-)으로 무릎치기를 한다. 그런 다음 무릎치기를 장구 구음장단으로 바꾸어 친다. 이를 잘 할 수 있을 때에 소고구음장단(궁-궁-궁-따궁따-)으로 바꾸어 연습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릎치기를 통하여 자진모리장단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구와 소고를 쉽게 연주 할 수도 있다.

그밖에 무릎치기 이외에도 배치기, 가슴치기, 어깨치기(자신의 양 어깨치기, 팔 벌려 옆 사람 어깨치기), 볼치기(검지손가락으로 양볼치기), 머리치기(손끝으로 쳐서 머리에 자극 주기), 엉덩이치기 등으로 신체타악기를 바꾸어서 연습하면 재미있는 동작 활동이 된다.

(2) 다성부 만들기 - 오스티나토와 보르둔

멜로디오스티나토는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이디엄(Idium) '이어도 사나'를 반복하여 노래와 오스티나토가 메기고 받는 소리의 연주형식을 살리고자 하였다.

전래놀이노래의 보르둔은 즉흥연주 화음반주로서 리듬은 자진모리 장구 구음장단을 활용하고 한국 전통5음 음계의 중심음 '라'와 '미'음으로 아래와 같이 5도 보르둔 분산화음형을 사용할 수 있다.



악보 2.

위의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점진적으로 붙여가며 2성부 합창에서 3성부 합창 등 다성부로 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3성부는 아래와 같이 오스티나토와 보르둔을 동시에 연주하여 구성할 수 있다.

표 5. 합주 연주보

성부\마디	1	2	3	4	5	6	7	8
멜로디		후렴		: 메기는소리 (1절-4절)		받는소리 : (후렴)		
오스티나토	O-----O							
보르둔		B-----B						

오스티나토가 처음 1마디를 연주 한 다음에, 후렴과 보르둔이 동시에 시작되고, 연이어 멜로디가 도입된다. 위의 3성부 합주보와는 다르게 보르둔과 오스티나토의 순서를 바꾸어 연주할 수도 있다.

3) 활동 III - 한삼춤놀이

『해녀소리 이어도』춤은 자진모리장단(‘딩--딩--딩-따쿵따-’)에 맞춰『해녀소리 이어도』를 부르며 원형으로 둘러서서 한삼춤을 추는 신체표현 활동이다. 한삼춤 기본춤사위 중에서 다음과 같이 굴신하기, 노젓기, 흘뿌리기 춤사위 등이 활용된다. 먼저 한삼춤 기본동작을 익힌 다음, 노래를 부르며 각각의 춤사위를 추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뒷머리쓸기, 꽃사위 등을 추가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한삼춤 기본동작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삼춤 기본동작

- ① 굴신하기-좌우로 몸을 돌리면서 무릎을 굽혀서 굴신하기
- ② 노젓기-양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를 향해 뻗었다가 가슴 쪽으로 구부리면서 노젓는 동작을 한다.

- ③ 훌뿌리기-한 팔씩 얼굴앞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번갈아 훌뿌린다.
- ④ 얼굴가리기-한삼 낀 두 손이 얼굴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진 상태에서 얼굴을 가리면서 한번은 왼쪽에서 들어올려 오른쪽으로 다른 한번은 오른쪽에서 들어올려 왼쪽으로 두 손을 내린다.
- ⑤ 뒷머리 쓸기-양팔을 들어 올리면서 한 팔을 뒷머리를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고 다른 한 팔은 뺨는 동작을 하며, 이를 방향을 바꾸어가며 번갈아한다.
- ⑥ 꽃사위- 양팔 손등을 맞대어 가운데로 들어 올려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훌뿌린다.

제1막 출항준비

해녀들이 한삼을 끼고 둥근 원형으로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출항준비를 알린다. 출항준비 한삼춤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삼춤 활동

가사	전주 2장단	이어도 사나 어허-어 이어도 사나 어허-어	1.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잘도 온다 2.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3. 물로 뱅뱅 도라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하세 4. 고동 생복 하서라마는 내숨 졸랑 못 혈래라	이어도 사나 어허-어 이어도 사나 어허-어	후주 2장단
		후렴	메기는 소리(1절-4절)	받는 소리(후렴)	
춤사위	굴신하기 좌우 2회	빗왼쪽 앞*/ 빗오른쪽앞으로 1보 전진하며 노젓기	앞쪽을 보고 훌뿌리기 좌우 2회	빗왼쪽 앞/ 빗오른쪽 앞으로 1보 전진하며 노젓기	굴신하기 좌우 2회

* 신체를 움직이는 한국춤사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8가지로 나뉜다.(허순선, 1991, 32)

제2막 출항

해녀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선두가 되는 리더 한 사람(교사 또는 학생)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늘어서서 뱃머리 모양을 이룬다. 그런 다음 한 팔은 앞 사람의 한삼 자락을 잡고 로 표현한다. 바닷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물결에 휩쓸리어 뒤로 물러 나가거나 풍랑으로 인하여 옆으로 배가 쏠리기도 하는 표현으로 모두 함께 군무형태로 춤을 춘다.

표 7 출항 춤 활동

가사	전주 4장단	후렴	메기는 소리(1절-4절)	받는 소리(후렴)	후주 4장단
춤사위	뒷머리쓸기	제자리에서 한팔로 노젓기	1. 뒷머리쓸기 4보전진→후진 2. 뒷머리쓸기 4보우로→좌로 3. 뒷머리쓸기 4보전진→후진 4. 뒷머리쓸기 4보우로→좌로	제자리에서 한팔로 노젓기	뒷머리쓸기

활동1. 전주:4장단(배만들기) - 뱃머리(선두)에 한 사람이 양팔을 뒤로 뻗치고 서서 뱃머리를 만들면, 학생들은 뒷머리쓸기를 춤추며 양팔을 기준으로 좌우 두 옆로 뱃모양을 만든다. 선두의 왼손을 잡는 사람은 오른손, 선두의 오른손을 잡는 사람은 왼손으로 각각 선두의 손을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제자리에서 한 팔로 뒷머리쓸기 춤을 춘다.'

활동2. 후렴(제자리에서 한팔로 노젓기) - 뱃모양을 이룬 채로 제자리에서 한 팔로 노젓기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활동3. 메기는 소리(한팔로 뒷머리쓸기) - 한팔로 뒷머리쓸기를 하며 1절과 3절은 4보전진하고 4보 후진, 2절과 4절은 4보 우로, 4보 좌로 움직인다.

4) 활동 IV - 풍어 뱃놀이 - 보자기놀이

학생이 어부와 물고기가 되어 그물을 형상화한 직사각형 보자기(폭 1.5m, 길이 2m, 폴리에스테르천)를 활용하는 풍어놀이 음악극이다. 이 음악극은 <바다탐색> <밀물투망놀이> <썰물투망놀이> <갯벌탐색> <고기잡이>순서로 5장면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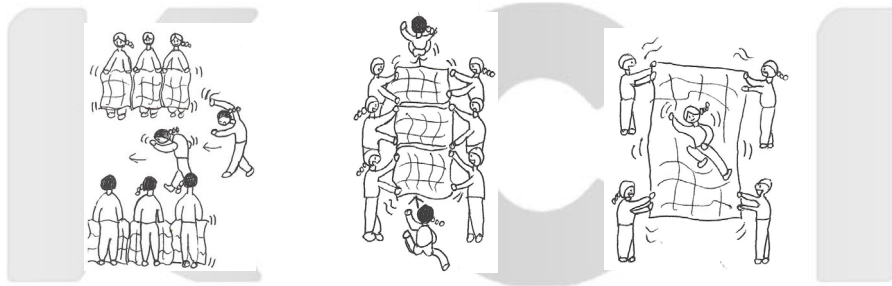


그림 2. 풍어 뱃놀이

제1막 바다탐색

세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은 어부가 되어 좌우로 일렬로 서서 직사각형의 보자기를 이어서 잡고 바닷길을 만들고, 물고기들이 지나갈 때에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노래를 부른다. 나머지 한 그룹은 물고기가 되어 깊은 바닷물을 헤엄치는 시늉을 훌뿌리기 춤을 추며 보자기 바닷길을 차례로 지나간다. 이 때에 바닷길을 만든 사람은 보자기 상단 끝을 잡고 흔들어 바닷물이 출렁이는 모습을 연출한다. 바닷물을 만드는 어부 팀과 유영을 하는 물고기 팀은 역할을 바꿔서 해 본다.

제2막 밀물투망놀이

어부팀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그물 보자기를 허리 높이로 맞잡고 눕혀서 풍량이 이는 넓고 깊은 바다를 만든다. 물고기팀은 그물 보자기 밑 바다로 유영을 한다. 같은 방법으로 노래하며 역할을 바꿔서 해 본다.

제3막 썰물투망놀이

어부팀은 그물 보자기를 무릎 높이로 맞잡고 눕혀서 썰물이 되어 물깊이가 얕아진 바다를 표현한다.

물 깊이는 알아졌으나 풍량이 일어나는 풍경을 보자기를 흔들며 표현한다. 물고기팀은 알아진 보자기 그물사이를 헤쳐 나가며 유영을 한다. 같은 방법으로 노래하며 역할을 바꿔서 해 본다.

제4막 갯벌탐색

어부팀은 그물 보자기를 바닥에 대고 맞잡아 갯벌을 상징하는 표현을 한다. 물고기팀은 바닥에 맞닿아 있는 보자기 그물을 헤쳐 나가며 바닥에 배를 대고 소라나 전복처럼 기어가 본다. 물고기팀의 두 번째 놀이는 보자기 그물 위로 배를 대고 소라나 전복처럼 기어가면서 갯벌을 탐색 해 본다. 같은 방법으로 노래하며 역할을 바꿔 본다.

제5막 고기잡이

5명이 한 조가 되어, 4명이 보자기 그물 한 귀퉁이를 잡아서 어부가 되고, 나머지 1명은 물고기가 되어 보자기그물에 탄다. 처음에는 바닥에다 보자기 그물을 대고 「이어도 사나」 노래에 맞추어 오른쪽 왼쪽으로 뒹굴린다. 두 번째 놀이는 고기잡이 놀이가 흥이 오르면 그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노래에 맞추어 양쪽으로 어르면서 흔든다. 노래의 빠르기를 달리 하여 처음에는 느리게 하다가 점점 빠르게 그물을 흔들어 본다. 어부역할과 물고기 역할을 바꿔서 해 본다.

본 연구진은 이를 학부모가 어부가 되고 유아들이 물고기가 되어 유치원에서 오르프 음악놀이를 적용한 바 있다.(2007.06.09부영예술유치원 학부모참여수업)

5) 활동 V - 소고춤 복놀이

소고춤 복놀이는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의 마지막 단계로 <이어도 출항>→<이어도 탐색>→<귀향> 3막으로 구성된다.

이 소고춤 복놀이 합주 활동은 세 가지 장면을 묘사한다.

소고춤 기본동작을 다음 2가지를 활용하여 후렴 받는 소리의 동작은 4박 모두치기 (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박을 모두치기)이다. 즉, 손동작을 하나-앞, 둘-뒤, 셋-앞, 넷-테를 치고 발동작은 1박에 1보를 띈다. 메기는 소리의 동작은 첫째, 둘째 박에 자기소고 앞뒤를 치고 셋째, 넷째 박에 남의 소고치기이다. 발동작은 제자리에서 1박 1보하기이다.



그림 3. 소고 복놀이

제1막 이어도로 출항

제1막<이어도 출항>은 해녀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출항하는 장면이다. 이어도로 출항을 하기 위한 전주로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교사가 리더가 되어 앞에 서서 동작을 유도하며 원을 만든다. 먼저 4박 모두치기를 1박1보 전진하며 원을 돈다. 원이 만들어지면 노래의 후렴을 부르며 4박을 모두치기를 하며 발동작은 첫째, 둘째 박에 빗왼쪽앞으로, 셋째, 넷째 박에 제자리로 온다. 메기는 소리에서는 첫째, 둘째 박에 자기 소고 앞뒤를 치고, 셋째, 넷째 박에 남의 소고치기를 제자리에서 1박1보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렴을 부르고 춤을 추며 마지막으로 4박 모두치기를 하며 원을 돈다.

표 8. 제 1막 이어도 출항

가사	전주	후렴	메기는 소리(1절-4절)	받는 소리(후렴)	후주
춤사위	4박모두치기(첫째, 둘째, 셋째, 넷째박)을 모두치기-1박 1보전진 원을 만들기.	4박모두치기-2박빗 왼쪽앞으로, 2박 제자리/반대로 빗오른쪽.	2박자기소고 앞뒤치기, 2박남의 소고치기-제자리에서 1박1보하기	4박모두치기-2박빗 왼쪽앞으로, 2박 제자리/반대로 빗오른쪽.	4박모두치기-1박1보 전진 원만들기; 홀수전진, 짝수제자리, 두개 원 만들어 마주보고 서기

제2막 이어도 탐색

제2막 <이어도 탐색>은 두개의 원으로 둘러서서 앞뒤 또는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가며 4박모두치기로 소고춤을 춘다. 리더는 가운데 서서 각 장면마다 활동 방향과 동작을 유도한다. 리더의 복장은 물색(청색)치마 옥색 저고리로 바닷물을 나타내고 탐색 고깔은 썰물일 때 나타나는 이어도를 상징한다.

표 9. 제2막 이어도 탐색

가사	전주 4장단	후렴	메기는 소리(1절-4절)	받는 소리(후렴)	후주 4장단
춤사위	4박 모두치기; 1박 1보				
방향	홀수 전진 짝수 제자리	빗오른쪽 빗 왼쪽	모두 전진하여 자리 바꾸기	빗오른쪽 빗왼쪽	짝수 전진 홀수 제자리

위의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 방법은 모두 원으로 둘러서서 첫 장단은 전진하고 둘째 장단은 후진하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다음 홀짝수로 나누어 한 사람 건너 홀수는 남고 짝수는 나가서 두 줄을 만들어 노래하고 춤춘다.

한 장단은 다같이 전진하고 둘째 장단은 뒤로 간다. 홀수는 앞으로 가고 짝수는 뒤로 간다. 원을 두개로 만든다. 이어도 다녀와서 서로 갖다온 의견을 말하면서 이어도 있다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고 없다는 사람은 뒤로 돌아간다는 뜻을 상징한다. 방향을 바꾸어서 안쪽과 바깥쪽으로 간다.

제3막 귀향

제3막 귀향에서는 4박모두치기를 1박 1보로 두개의 원으로 둘러서서 가운데 원은 시계방향으로 바깥 원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고, 다시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춤을 춘다. 각자의 귀가하는 방향이 다르므로 집에 돌아가는 방향이 다른 것을 상징한다.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는 후주 4장단에 한 원을 만들어서 차례로 리더의 유도로 퇴장한다.

표 10. 제3막 귀향

가사	전주 4장단	후렴	메기는 소리(1절-4절)	받는 소리(후렴)	후주 4장단
춤사위	4박모두치기; 1박 1보				
방향	홀수 시계방향 짝수 반대방향	짝수 시계방향 홀수 반대방향	홀수 시계방향 짝수 반대방향	짝수 시계방향 홀수 반대방향	한 원을 만들며 퇴장

IV. 맺음말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즉흥표현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집단학습 지도방안으로서 우리 민요와 전통악기 및 전통춤을 학습제재로 활용한 오르프 음악놀이 만들기를 모색하였다.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는 활동Ⅰ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 탐색→활동Ⅱ 다성부 합창→활동Ⅲ 한삼춤 놀이→활동Ⅳ 풍어 뱃놀이→활동Ⅴ 소고춤 북놀이 등 크게 5가지 활동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 민요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가락과 장단을 활용하여 말리듬·리듬 오스티나토·멜로디 오스티나토·보루둔 반주붙이기를 통한 다성부 노래 부르기, 한삼춤, 소고춤 등이 즉흥표현 음악놀이로 전개되었다. 둘째, 해녀들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을 메기고 받는 연주형식의 「이어도 사나」를 부르며 전통춤 사위 한삼춤을 추는 즉흥 음악극 만들기 지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습활동 자료로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할 때 사용하는 태와과 물허벅이 생활악기로 도입되었다. 넷째, 그물망을 잡고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모듬별로 풍량을 표현하는 풍어 뱃놀이 및 소고춤 북놀이가 합주 및 통합 활동으로 모색되었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제주 해녀소리 「이어도 사나」의 가락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한 유절형식으로 편곡되었으며 가사도 그에 맞게 개사되었다. 또한 학습활동 전개과정이 세부 지도안이 게재되지 못하고 간략한 설명과 함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 및 활동 그림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어도 사나」 오르프 음악놀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재량수업·특별활동·방

과후 교실 등에서 전통문화교육과 즉흥표현활동을 통한 음악 만들기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즉흥표현 활동중심의 지도방안과 전통과 현대를 접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혜인(2002). **유아교육 우리음악으로 가르쳐요**. 서울: 민속원.
- 국립국악원(1995). **제주민요** CD. 서울: 이엔이 미디어.
- 김순제(1990). **한국의 뱃노래**. 서울: 호악사.
- 김숙경(2002). **한국 전래놀이 노래(IV)**. 서울: 한국민속아동음악연구소 출판부.
- 김영돈(2002). **제주도 민요연구**. 서울: 민속원.
- 김영전(2004). **오르프 접근법을 활용한 유아음악 지도**. 서울: 키즈키즈 오르프 숄베르크 연구회.
- 박경수(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 서울: 국학자료원.
- 신현덕 외(2007).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전래동요**. 서울: 현암사.
- 안경수(2005).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제주도 민요곡집**. 서울: 국악춘추사.
- 우영자(2006). **메기고 받기 방식을 활용한 초등학교 민요지도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규(2005). 국악교육의 세계화 방안 시고. **음악교육**, 5, 87-105
- 이창식(2002). **한국의 유희민요**. 서울: 집문당.
- 임동권(2002). **여성과 민요**. 서울: 집문당.
- 임석재(1969). **씨를 뿌리자**. 서울: 남산소년.
- 조효임(1998). **오르프악기 지도법**. 서울: 학문사.
- 조효임(1998). **오르프악기 합주지도법**. 서울: 학문사.
- 조효임(1999a). **오르프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조효임(1999b). **오르프 교수법의 한국적 수용**.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음악교육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 조효임, 고은실(2006). 오르프접근법을 통한 음악놀이 지도방안 -전래놀이노래 「핑핑 장서방」을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32, 357-389.
- 좌혜경(2000). **한국·제주·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서울: 푸른사상.
- 최시원(1996).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를 향한 음악교육**. 서울: 도서출판 다라.
- 허순선(1991). **한국의 전통 춤사위- 이론과 용어해설 및 도해**. 서울: 형설출판사.
- Wieblitz, C. (2007). *Lebendiger Kinderchor*. Boppard am Rhein: Fidula-Verlag.

ABSTRACT

An Approach to the Orff Musical Utilizing the Korean Women Diver's Song 「Ieudo sana」

Cho, Hio-lhm(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an approach to develop a methodology to guide the lines of lesson plans for a Korean folk song-musical, an educational resource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s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based on an actual instances of the lectures and classes which the author presented at Korean kindergarten*. Folk songs would be an excellent educational resources and learning material for understanding traditional music and traditional play culture as well. Especially, 「Ieudo sana」 (Do you live in Ieudo), the Korean women diver's song(barcarole) on Che-ju island sung and handed down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would be an educational resource and learning material appropriated to be developed as an 'Orff musical' for group lessons, accordingly, being familiar with the rhythm and melody of Korean folk music, folk instrument and folk dance, as on unity, by utilizing the barcarole 「Ieu-do sana」. The lesson plan for the Orff musical, utilizing the women diver's song, folk instruments, such as so-go(hand drum) and folk dance 「Hansamchum」, has been established as the outcoming result of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ation. The Orff Musical consists of 5 acts.

Key words : orff musical, lesson plan for korean folk song-musical, korean women diver's song 「Ieudo sana」

접수일 : 2008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30일

* It was presented at the Booyoung preschool of arts in Namyang-ju city in July 2008.